

(미래정책연구실, 2010.02.16)

□ USDA, 새로운 가축 질병 이력추적제 발표

※ USDA 보도자료 (2010.02.05) 주요 내용

- 농무부 Tom Vilsack 장관은 새롭고 유연한 가축 질병 이력추적제를 개발하고 가축 질병 예방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함.
 - 가축이력시스템에 대한 15개 도시의 공청회 여론을 종합한 결과, 가축 질병 이력추적제가 꼭 필요하다고 결론
 - 이전 정책들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으며 리스닝 투어에 대한 피드백을 적용하여 변화된 가축 질병 이력추적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할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발언함.
- NASDA(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epartments of Agriculture)에서 밝힌 틀은 미국 내 가축 질병 이력추적 능력을 개선시킬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공함. USDA의 노력은
 - 주간(interstate) 상업을 위해 이동하는 동물들에만 적용됨.
 - 높은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주(State)와 Tribal Nations에 의해 집행됨.
 - 저비용 기술 사용을 격려함.
 - 연방 규제, 완전한 규칙 제정 과정으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함.
- 농무부의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가축 질병 이력추적제에 대해 공동의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가축 건강 관련 지도자들과 포럼을 여는 것임.
- 농무부는 미국 농업을 보호하는 견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성명서를 통해 질병의 등장과 확산을 보다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보다 몇 가지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힘.

□ 미국 바이오연료 생산, 목표액에 부족

※ Wall Street Journal (2010.02.04) 주요 내용

- 2.3일 미국 환경보호국은 올해 바이오에탄올(cellulosic ethanol) 생산량이 예상보다 적은 650만 갤런으로 기대된다고 의회에 보고함.
 - 이는 비식용 작물을 수송연료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목표가 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과 바이오연료를 생산 공장의 재정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비현실적이라고 시사함.
- 의회는 2007년 연료에 바이오에탄올(가솔린에 스위치그래스, 사탕수수찌꺼기 등을 첨가한 연료) 1억 갤런을 가솔린에 혼합하여 사용할 것을 법제화하였음.
 - 2008년에는 2억 5천만 갤런, 2022년까지는 160억 갤런까지 늘릴 것으로 의무화 하였음.
-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실패는 개별 연료 기술에 대한 목표가 잘못된 접근이었다고 믿는 국회의원이나 변호사들에게 힘을 실어줌.
 - 바이오연료 옹호자들은 2008년과 2009년에 개발이 저조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경제위기와 재정난을 지목함.
- 환경보호국은 바이오연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족시키는지와 자동차 연료의 첨가제로 적합한지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음.
 - 2007년에 사탕수수로 만든 에탄올과 바이오에탄올이 기존의 가솔린보다 더 깨끗한 연료이고 진보된 바이오연료 기술로 법제화되었음. 또한 환경보호국은 몇몇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이 더 청정한 연료이고, 새로운 효율적 기술들을 사용한다고 언급함.
- 오바마 대통령은, 만약 기후 변화에 대한 위협에 동의하지 않아도 청정 에너지 관련 일자리와 사업에 대한 투자는 우리 경제를 위해 옳은 일에 틀림 없다고 발언.
 - 해외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여전히 안보 측면에서 옳은 일이라고 언급함.

- 청정 석탄 T/F는 10년 안에 석탄에서 나오는 배출물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어떻게 적절히 사용할 것인지 알아낼 책임이 있다고 발언.
- 워킹 그룹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재정 확충을 위해 에너지부, 농무부에서 지원하는 연구 용자, 용자 보증이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목표를 확실하게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.
-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자들은 바이오연료 산업이 기존의 프로젝트-파이낸스 모델들과 상이하여 에너지부로부터 용자 보증을 받는 것이 너무 까다롭다고 불만을 토로함.
-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자들은 가솔린에 바이오연료 혼합 최대 비율을 10%에서 15% 또는 20%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제안함.
- 시험 결과 소형승용차의 경우 더 높은 혼합비율이 더 적합한 것이 증명되어 환경보호국은 연중 결정내리기로 약속함.